

돈의 노예 된 상아탑... 자율성 사라져 암울



<3> 공모사업에 목매는 대학

정원 줄어도 등록금 못올려 정부 재정지원 따내기 위한 정책 무비판 수용에 혼선도 대학 무능·무책임 잇단 비판

전남대는 올해까지 8년 연속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선택했다. 학교 운영 과정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큰데도 올릴 수 없었던 데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패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선대는 지난해 입학정원을 528명 줄이면서 35억원의 수익이 줄었지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를 감안하면 등록금 동결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는 게 낫

다는 판단에다.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봉착한 지역 대학들에게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다.

전남대의 경우 최근 3년(2013~2015년) 동안 수주한 정부 지원 사업비 규모만 2774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지방대 특성화 사업'(CK-1), '대학 인문역량강화 사업'(CORE),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 등으로 수백억원을 지원받는다.

조선대도 올해만 222억5000만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광주대는 지난해 60여개 과제를 수주, 126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호남대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이) 사업과 지방대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 대학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정원 감축 ▲학과 통합 ▲총장직선제 ▲등록금 인상을 등을 대학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많다.

대학들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정부 정책에 무비

판적으로 순응하면서 '별데저런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재정사업 수주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학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 사업을 따내는데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대학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관리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이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 2014년 7개 사업단이 교육부의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지만 최근 성과평가 결과, 3개 사업단만 계속 지원받게 됐다.

나머지 창의적 과학·문화 콘텐츠 인재 양성 사업단과 글로벌 비즈니스 인력양성 사업단, 지능형 소재·부품 창의인재 양성 사업단, '문사철'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은 재선정 평가 대상에 올라 계속 지원 여부가 미지수다.

전남대 평의원회는 이와관련, "대학본부의 소홀한 지원과 관리가 초래한 무더기 중도탈락 사례로 대학본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대학도 비슷한 처지로 ▲광주대 강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인력양성 사업단 ▲남부대 장애아동을 위한 비전정 에듀케어선 ▲호남대 패션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등

은 계속 지원 여부가 보류된 상태로 재심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빚어지는 혼선은 학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대는 올 해 초 '사회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외국어대를 글로벌경영대에 포함시켜 재편하는 한편, 인문대 통폐합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 사업 평가에서 탈락하지 곧바로 인문 역량을 키우는 대학이 되겠다며 '인문역량 강화 사업'을 신청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 행보로 비판을 받았다.

조선대는 교육부 방침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다가 의대, 치의대로 복귀한 바 있다.

우희중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산업 수요에 맞춘 이공계 인력 양성 방침과 관련, "이공계 정원이 현재 산업규모에 비해 넘친다는 게 학계 분석"이라며 "고등교육의 산업 수요 한기지로 몰아가며 되면 대학의 사회적 기능은 오히려 위축되고 진정한 이공계 지식 창출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출 청소년 유혹 '채팅 앱 주의보'

북부경찰, 성매매 알선 창구 악용 돈 챙긴 3명 등 5명 적발

가출 청소년을 유혹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특별한 신상정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이 성매매에 이용되면서 청소년들이 관련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모델 등에 10대 가출 청소년을 합숙시킨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매매 알선 업주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들을 관리하며 성매매 알선을 도운 이모(16)군과 김모(15)양, 성매매 수 2명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미성년자인 A(14)양 등 가출 청소년 3명을 꼬드겨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14일까지 광주와 목포 일대에서 약 100회가량 성매매를 알선해 소개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건 만남을 할 때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가출 청소년 2명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에 '한 달에 500만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글을 올려 이군과 김양을 실장으로 고용, A양 등을 관리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이군 등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A양 등 3명을 유인해 모델에 합숙시킨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연결된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차례에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1건당 5만~1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매매수입금을 헐박할 목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관계시 알몸 사진과 동영상 촬영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 개가 넘는 스마트폰 채팅 앱은 신상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 성매매도 점차 조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청 공무원 투신 자살

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함평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39분께 함평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함평군청 공무원 A(46·7급)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아파트 12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A씨는 수년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됐던 축사와 해보농공단지 관련 집단 민원도 A씨가 담당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상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서 상담 치료를 받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함평=황윤희기자 hwang@



빨간 가방 채우기 의미 아니냐요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무등클럽 회원들이 2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이퀄페이데이(Equal Pay Day) '빨간 가방을 채워주세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임금 차이가 있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동일해지는 날을 의미한다.

"임의동행 상태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징방해 해당 안돼"

광주지법, 20대 무죄 선고

임의동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공무원징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서를 나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원징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되고 나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수 없다"며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공무원징방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부당하게 구금된 상태에서 획득한 증거는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안군선관위, 총선 수당 누락 사무장 등 4명 고발

경찰, 고흥군의회 의장 선거 금품수수 의혹 내사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 회계보고에서 선거사무원 수당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사무장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낙선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총선 직후 선관위에 회

계보고를 하면서 선거사무원 수당 2800여만원을 포함하면 선거비용 제한액(2억1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자 해당 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연락소장 C씨는 선거비용 초과로 수당 지급이 어렵게 되자 읍·면 책임자들에게 자비로 수당을 해결하라고 지시했

고, 자원봉사자 D씨는 선거사무원 8명의 수당 728만원을 대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흥군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3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제7대 후반의 의장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후보와 의원들간 돈이 오갔다는 소문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돈이 오간 것이

아니라 돈으로 표를 얻기 위해 거래하려 했다는 소문이 있어 확인하는 단계"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후보가 그랬는지 알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의회 후반의 의장에는 3인의 더불어민주당 김의구 의원, 부의장은 2선의 송우섭 의원이 선출됐다. 하지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투표에 앞서 퇴장하는 등 파행 속에 진행되면서 반쪽 선거로 전락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 /고흥=주각중기자 gju@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촬영한 업주 '쇠고랑'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이른바 몰카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피해 여성을 협박한 40대 식당 업주가 쇠고랑.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구속된 A(48)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시 북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카카

메라를 설치해 놓고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한 혐의.

○"운명적으로 식당 문을 닫은 A씨는 동영상 피해여성 중 한 명에게 최근 피해 여성을 협박한 40대 식당 업주가 쇠고랑.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구속된 A(48)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시 북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카카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특허방수 2층단열방수, 전천후시공성, 절연방식시공, 내구성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이스타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제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패션, 시공후, 시공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점남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공공기관·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위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위업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너브**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